

5요인 성격특성과 학업 소진과의 관계*

박 일 경 이 상 민 최 보 영 Yuanying Jin 이 자 영†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성격적 통합 모델에 근거한 5요인 성격특성과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업소진과의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학업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생 총 447명을 대상으로 학업소진과 5요인 성격특성을 측정한 후, 다변량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5요인 성격특성 중 외향성, 성실성,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이 학업소진의 하위요인인 탈진, 냉담 그리고 학업 무능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학업소진 중 탈진은 정서적 안정성이, 그리고 냉담과 학업 무능감은 성실성이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업 소진, 5요인 성격특성, 다변량다중회귀분석

학교(學校)는 배움을 위한 장소로, 학생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식을 얻고 경험하는 곳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는 높은 교육열과 학력에 의해 평가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전인교육의 실현'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입시위주의 교육과 과도한 경쟁 등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곳으로 변했다(이혜영, 1995). 이처럼 시험 성적에 의해 학생을 평가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학업이나 성적은 청소년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김종주, 1990; 이관용, 김기중, 김순화, 1987; 이명희, 1989).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10살에서 19살까지의 청소년이 수면제를 처방받은 건수가 2006년에 비해 2008년에 50%나 늘어나 청소년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 또한 청소년 통계(통계청, 2009)에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각각

* 본 원고는 박일경의 교육대학원 논문을 기초로 해서 작성되었으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BK21 교육학국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이자영,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E-mail: hycounselor@hanmail.net

43.4%와 49.9%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은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부나 성적과 같은 학업문제가 가장 주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나타났으며(오미향, 1993; 이경희, 1995; 정은주, 2000; 황정규, 1990; Lee, 1994), 같은 맥락에서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적이나 입시와 같은 학업문제가 중학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김봉진, 2002; 이경희, 1995).

학업 스트레스란 학교 공부나 성적으로 인하여 그 일이 너무 힘겹고 하기 싫거나 귀찮다고 생각되어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과 긴장, 근심, 공포, 우울, 초조함 등과 같은 편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한다(오미향·천성문, 1994). 청소년이 학업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게 되면 목과 등의 근육이 뻣뻣해지고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성장 장애가 유발되기도 하고(권도원, 2001), 사물과 사건을 대하는 기제가 감정적이거나 예민하게 되어 우울과 자살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홍영수, 2004). 특히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이지현, 2008), 청소년의 자살 이유 중 학교 성적 및 대학 입시에 대한 중압감, 폭력 등이 전체 건수의 35%를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김기환·전명희, 2000)를 통해서도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청소년들이 느끼는 고통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청소년들과 비교 연구한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으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Lee와 Larson(2000)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경쟁적인 대학입시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미국의 청소년들보다 더 심한 우울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에서 비롯된 심각한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받는 학업 스트레스의 수준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원호택·이민규, 1987; 유수현, 1996; 윤진, 1993; 이경희, 1995; 이유미, 1995; 이희자, 2007; 정은주, 2000; 조학래, 1997),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그들이 겪는 정신적,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해 심각한 무능감을 느끼며 공부가 싫어지고 회의적이게 되는 학업소진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복, 이상민, 이자영, 2009).

일반적으로 소진(burnout)이란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업무 요구로 인해 피로감, 좌절감, 일로부터의 거리감, 스트레스, 정신적 소모감과 고갈, 무력감, 절망감, 냉소적인 태도 등을 나타내는 신체적·정서적·정신적 고갈 상태를 의미한다(이자영 외, 2008).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Freudenberger(1974)로, 그는 소진을 자신의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자신이 기대하였던 성과나 보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업무에 회의감이나 좌절감을 겪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소진은 주로 감정, 태도, 동기 및 기대감과 관련된 내적인 심리적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각해질 경우 질병, 무단결근 그리고 우울증 등을 야기하는 것(Maslach, & Pines, 1977)으로 알려지면서 소진을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Kottler, 1993; 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McConnell, 1982; Skovholt, 2001). 그 결과 소진의 개념은 초기에는 인간서비스계통의 종사자들을 위한 개념으로 제한되었으나 최근에는 일의 개념이 변화되면서 결혼, 정치적 활동 등 비직업적 영역 역시 업무로 보고 비직업적 영역으로까지 소진의 개념이 확대되었다(윤은주, 2007; Maslach, & Schaufelie, 1993), 학업소진(academic burnout) 또한 그 중 하나이다. 학생들은 공식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formal worker)과 학업이라는 업무에 의해 직접적인 보상 또는 이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업이라는 규칙적인 활동과 구체적 과제를 수행을 해야 하는 유사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업이라는 업무로 인해 공식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유사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Edgar, 2008). 즉 학업 소진(academic burnout)이란 장기간에 걸친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야기되는 심리적 증후군으로 정서적인 고갈, 학업에 대한 냉담과 낮은 성취감 등을 주된 증상으로 한다(이영복, 2009; McCarthy, Pretty, & Catano, 1990; Meier, & Schmeck, 1985; Schaufeli, Martez, Marques Pinto, Salanova, & Bakker, 2002). 이러한 학업소진은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소진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고통스러워하는 학생들(distressed students), 자유방임주의

학생들(laissez-faire students), 인내심이 강한 학생들(persevering students) 그리고 잘 기능하는 학생들(well-functioning students)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고통스러워하는 학생들'은 탈진과 냉담, 무능감이 높고, '자유방임주의 학생들'은 탈진과 냉담은 낮고 그리고 무능감은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인내심이 강한 학생들'은 탈진과 냉담은 높지만, 무능감이 낮으며, 마지막으로 '잘 기능하는 학생들'은 탈진, 냉담 그리고 무능감도 낮은 학생들이다(Lee et al., in press). 이러한 결과는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나 성격에 따라 학업소진이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업소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Jacobs와 Dodd(2003) 또한 동일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부여했을 때 어떤 학생은 더 많이 지각하고 어떤 학생은 덜 지각하듯이 학업 소진 역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함으로써 이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지지하였다.

한편, Freudenberger(1974)는 소진과 개인의 성격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소진 연구에 있어서 성격이라는 변인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일반적으로 소진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 이입을 잘하고, 민감하며, 내성적이고 열성적이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과 애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herniss, 1980; Farber, 1982; Freudenberger, 1980; Maslach, 1982). Maslach와 Jackson(1981) 역시 물리적인 환경 구조보다는 성격과 같은 내적 특성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대인 관계 특성이 소진과 더 높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중요성을 지지하였다.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소진을 연구한 Jacobs와 Dodd(2003) 또한 부정적인 기질이 높은 학업소진을 예측하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성격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소진뿐만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소진에서도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내었다. 이처럼 개인의 성격이 소진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성격을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모델은 5요인 성격 모델이다.

5요인 성격 모델은 특성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사람들의 성격은 공통적으로 5요인(Big-Fiv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5개 요인은 개인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까지 폭넓게 설명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Buss, 1989). 여기서의 5요인은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을 의미한다. 이중 정서적 안정성 요인은 이를 역문항으로 바꿔서 신경증 또는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명명되기도 하다. 이처럼 5요인에 대한 명칭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선희, 하대현, 최형주, 2004; Hendriks, 1999). 각 요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외향성(Extraversion)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좋아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친화성(Agreeableness)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이 높은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고, 협조적이고, 양보심과 인내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등 이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낮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들은 적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질투심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것이 높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철저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계획성이 있는 등 신뢰감을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은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자신이 세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것이 낮은 사람들은 걱정이 많고, 긴장되어 있고, 의기소침하며, 화를 잘 내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것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를 잘 극복하고 차분하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개방성(Openness)은 지적 자극, 변화 그리고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것이 높은 사람들은 상상력과 교양이 풍부하고, 창의적이며, 호기심이 많

고, 새로운 것에 개방적이고, 지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은 5요인 성격이론이 개인의 성격에 대한 안정된 정보를 제공해주므로, 개인차와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소정, 2008; Buss, 1989; Goldberg, 1992).

이러한 5요인 성격과 소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5요인 성격이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나 구체적인 특징들은 상이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즉 Huebner와 Mills(1994)는 정서적안정성은 소진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탈진(emotional exhaustion), 개인적 성취감(personal accomplishment), 그리고 비인간화(depersionalization)와 모두 상관이 있다는 보고하였으나, 일부 다른 학자들은 단지 정서적 탈진 또는 비인간화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영란, 2006; Zellars, Perrewe, & Hochwarter, 2000).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외향성은 정서적 탈진과 개인의 성취감과 상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Eastburg, Williamson, Gorsuch, & Ridley, 1994; Mills, & Huebner, 1999), 다른 연구에서는 비인간화와 개인적 성취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kker, Van Der Zee, Lewig, & Dollard, 2006; Huebner, & Mills, 1994). 개방성 역시 비인간화와 상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으나(Zellars, Perrewe, & Hochwarter, 2000), 다른 연구에서는 개방성과 소진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거나(Piedmont, 1993) 개방적일수록 정서적 탈진을 더 경험하기 쉽다(Deary et al., 2003)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이처럼 5요인 성격과 소진의 하위요인 간에 상이한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연구 대상의 특성 및 직무 환경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인의 성격 특성과 학업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안정성, 책임성 등의 성격특성(김광태, 2000)과 성격 5요인 중 외향성과 개방성(김아름, 2005)은 시험불안과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정성, 사회성 및 성격 5요인 중 성실성과 개방성, 외향성이 학업성취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김사영, 1984; 한윤영, 2003)와, 성실성이 숙달준근목표 지향성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해 봤을 때(박선

영, 2005) 성격 5요인과 학업소진과의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성실성 및 정서적 안정성, 외향성, 개방성이 학업소진과 부적의 상관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개인적 성취감 및 냉담의 학업소진 하위 요인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관을 보일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5요인 성격이 소진에 미치는 세부적인 영향이 일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상에 따라서는 결과 또한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ee와 그녀의 동료들(in press)이 학업소진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기존 상담자나 경찰 등과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은 학생들의 특성이 기존 직장인들과는 또 다른 형태로 학업소진이 나타날 가능성을 지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5요인 성격이 학업소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 통합 모델에 근거한 5요인 성격특성과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업소진과의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학업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원 지역의 중학생 총 44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은 시도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한 학교를 임의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그런 후 한 학교당 학년별로 한 학급씩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도지역의 중학생 209명(46.8%)과 읍면 지역 중학생 238명(53.2%)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219명(49%)이었으며, 여학생은 228명(51%)으로 남녀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에 따른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보고한 성적을 살펴보면, 1-10등 110명(24.6%), 11-20등 127명(28.4%), 21-30등이 111명(24.8%) 그리고 30등 이상이 99명(22.1%)로 나타났다. 11-20등이 가장 많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성별 및 학년 분포 명(%)

학년	남	녀	전체
중 1	57(12.8)	75(16.8)	132(29.5)
중 2	66(14.8)	78(17.4)	144(32.2)
중 3	96(21.5)	75(16.8)	171(38.3)
전체	219(49.0)	228(51.0)	447(100.0)

연구 도구

학업소진척도

학업소진척도는 Schaufeli와 그의 동료들(2002)이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학업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MBI-SS)를 Lee와 그녀의 동료들(in press)이 한국 청소년에 맞게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chaufeli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학업소진척도는 일반인의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MBI-GS(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MBI-GS)를 학생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탈진(exhaustion), 냉담(cynicism) 그리고 효능감(efficacy)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되었다(Schaufeli et al., 2002; Gan, Shang, & Zhang, 2007). 특히 Hu와 Schaufeli(2009)는 중국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하는 과정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포함한 결과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타당화된 척도를 Lee와 그녀의 동료들(in press)은 박사과정 1인이 한국어로 번안한 후 교수 2인의 감수를 거쳐 개발하여 박일경(2009)이 활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탈진 .90, 냉담 .86, 효능감 .84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ee와 그녀의 동료들(in press)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학업소진 척도는 탈진 5문항, 냉담 4문항 그리고 학업 효능감 6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전혀 안 그렇다'(1) ~ '매우 그렇다'(5)에 응답하도록 만든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학업 효능감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반대로 환산하여 분석되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업 무능감으로 명명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탈진 81, 냉담 77, 학업 무능감 .80으로 나타났다.

5요인 성격특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Goldberg(1992)가 개발한 성격 측정용 형용사 척도를 Saucier(1994)가 단축형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Goldberg(1992)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형용사들을 분석하여 100개의 단극형 형용사 척도를 개발하여 총 5개의 하위요인, 즉 외향성(Extraversion), 성실성(Conscientiousness), 친화성(Agreeableness), 개방성(Experience)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각 요인별로 20문항씩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는 내적 상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어렵거나 부정적인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Saucier, 1994, Saucier(1994)가 5요인 성격 특성 단극형 형용사 척도의 단축형(Mini-Markers: A Brief version of Goldberg' Unipolar Big-Five Markers)을 개발하였다. 5요인 성격특성 단극형 형용사 척도의 단축형의 경우 역시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별로 각각 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Saucier(1994)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6 ~ .8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Saucier(1994)가 개발한 5요인 성격특성 단극형 형용사 척도의 단축형(Mini-Markers: A Brief version of Goldberg' Unipolar Big-Five Markers)를 박일경(200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자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1) ~ '자신과 완전히 일치한다'(8)에 응답하도록 만든 8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외향성 .78, 성실성 .55, 친화성 .69, 개방성 .68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 .60으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연구의 진행은 피험자로 선발된 강원도 지역의 중학생 집단에서 집단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은 시도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한 학교를 임의

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그런 후 한 학교당 학년별로 한 학급씩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수거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 15.0(Windows Version 15.0)을 활용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학업소진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학년, 성적, 성별 그리고 지역에 따른 학업소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런 후 학업소진과 학생들의 5요인 성격특성(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간 단순상관분석(Zero order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요인 성격특성이 학업소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업이 과다하다고 지각될 때 학업과다와 학업소진간의 관계에서 통제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다변량회귀분석(multivariat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먼저 학생들의 학업소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학교 477명의 학업소진 평균을 살펴보았다. 1점 “전혀 아니다”와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탈진은 2.84(표준편차=.82), 냉담은 2.61(표준편차=.86) 그리고 학업 무능감은 3.04(표준편차=.73)에 평균이 위치하여 세 요인 중 학업 무능감의 평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학년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탈진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은 2.76(표준편차=.78)이었고 중학교 2학년은 2.72(표준편차=.81)인 반면 중학교 3학년은 3.01(표준편차=.82)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1, 2학년에 비해 3학년 학생이 학업 소진 중 탈진 [$F(2,444)=5.98, p<.01$]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무능감의 평균도 중학교 1학년은 2.91(표준편차=.80), 중학교 2학년은 3.08(표준편차=.70)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은 3.11(표준편차=.68)로 나타났다. Tukey 사후검증결과, 중학교 1학년에 비해 중학교 3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어 [$F(2,444)=5.98, p<.05$] 탈진과 마찬가지로 학업 무능감 역시 중학교 3학년이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소진 중 냉담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2,444)=2.07, ns$]. 또한 성적에 따른 학업소진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 성적이 낮아질수록 탈진 [$F(3,443)=3.67, p<.05$], 냉담 [$F(3,443)=13.47, p<.01$] 그리고 학업 무능감 [$F(3,443)=28.66, p<.01$]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지역(시도/읍면)에 따라서는 학생의 학업소진 즉 탈진, 냉담 그리고 학업 무능감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별: 탈진 [$F(1,445)=.44, ns$], 냉담 [$F(1,445)=3.37, ns$] 그리고 학업 무능감 [$F(1,445)=.03, ns$], 지역: 탈진 [$F(1,445)=.68, ns$], 냉담 [$F(1,445)=2.21, ns$] 그리고 학업 무능감 [$F(1,445)=.54, ns$].

표2. 학업소진의 학년별 평균(표준편차)

	중1	중2	중3
탈진	2.76 (.78)	2.72 (.81)	3.01 (.82)
냉담	2.48 (.84)	2.63 (.87)	2.68 (.86)
학업 무능감	2.91 (.80)	3.08 (.70)	3.11 (.68)

본 연구에서는 학업소진이 성격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5요인 성격 특성(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과 학업소진(탈진, 냉담, 학업 무능감)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단순상관계수(r)를 구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5요인 성격특성의 하위요인 중 성실성과 친화성은 학업소진의 하위요인인 탈진($r=-.15, p<.01$; $r=-.11, p<.05$), 냉담($r=-.26, p<.01$; $r=-.18, p<.01$), 그리고 학업 무능감($r=-.51, p<.01$; $r=-.32,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요인 성격 특성 중 개방성은 학업소진의 하위요인인 냉담과 학업 무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12, p<.05$; $r=-.36, p<.01$), 정서적 안정성의 경우 탈진 그리고 냉담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24, p<.01$; $r=-.11, p<.05$). 그리고 5요인 성격 특성 중 외향성의 경우에는 단지 학업소진의 하위요인 중 학업 무능감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19, p<.01$).

표3. 5요인 성격특성과 학업소진간의 단순 상관계수(r)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	탈진	냉담	학업 무능감
외향성	-							
성실성	.13*	-						
친화성	.07	.50**	-					
개방성	.17**	.46**	.36**	-				
정서적 안정성	-.05	.20**	.25**	-.13**	-			
탈진	-.06	-.15**	-.11*	-.06	-.24**	-		
냉담	-.08	-.26**	-.18**	-.12*	-.11*	.53*	-	
학업 무능감	-.19**	-.51**	-.32**	-.36**	-.04	.21**	.35**	-

** $p < .01$, * $p < .05$

그런 후 학생의 5요인 성격특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요인 성격특성의 각 하위요인(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정서적안정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업소진(탈진, 냉담, 학업 무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를 동시다발적으로(simultaneously) 측정하기 위해 다변량 다중회귀분석(multi-variat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 학년과 성적에 따라 소진의 평균 차이를 보였던 앞선 결과를 고려하여, 두 변인을 통제한 후 5요인 성격특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다변량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4에서 제시되었듯이, 외향성, 성실성,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은 학업소진의 하위요인인 탈진, 냉담 그리고 학업 무능감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 Wilks's lambda=.98, $F(3,439)=2.80$, $p < .05$; 성실성 Wilks's lambda=.91, $F(3,439)=14.92$, $p < .01$; 정서적 안정성 Wilks's lambda=.94, $F(3,439)=8.63$, $p < .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외향성이 적을수록 학업 무능감을 더 많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t(442)=-2.71$, $p < .01$], 성실성이 낮을수록 냉담과 학업 무능감을 더 많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442)=-2.44$, $p < .05$; $t(442)=-6.56$, $p < .01$]. 또한 친화성이 높을수록 학업 무능감을 더 적게 예측하며 [$t(442)=-2.13$, $p < .05$], 정서적 안정성이 낮을수록 탈진을 더 많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442)=-4.79$, $p < .01$]. 이처럼 학년과 성적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성격 5요인 중 외향성, 성실성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인으로 함께 분석하였던 학년과 성적의 경우, 두 변인 모두 학업소진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년 Wilks's lambda=.98, $F(3,439)=3.08$, $p < .05$; 성적 Wilks's lambda=.90, $F(3,439)=16.83$, $p < .01$].

표4. 5요인 성격특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i>B</i>	<i>SE</i>	<i>t</i>	<i>Wilks's A</i>	<i>F</i>
외향성	탈진	.00	.02	.16	.98	2.80*
	냉담	-.02	.01	-1.04		
	학업 무능감	-.04	.02	-2.71**		
성실성	탈진	-.02	.03	-.72	.91	14.92**
	냉담	-.06	.02	-2.44*		
	학업 무능감	-.17	.03	-6.56**		
친화성	탈진	-.00	.02	-.18	.99	2.12
	냉담	-.03	.02	-1.53		
	학업 무능감	-.05	.02	-2.13*		
개방성	탈진	-.01	.02	-.39	.98	1.72
	냉담	.02	.02	.83		
	학업 무능감	-.04	.02	-1.75		
정서적 안정성	탈진	-.10	.02	-4.79**	.94	8.63**
	냉담	-.02	.02	-1.31		
	학업 무능감	.01	.02	.70		

** $p < .01$, * $p < .05$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5요인 성격 특성이 학업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학년, 성적, 성별 그리고 지역에 따른 소진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년과 성적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학업소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1, 2학년에 비해 3학년 학생이 탈진이 더 높았으며, 학업 무능감 역시 중학교 1학년에 비해 3학년 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의 경우 성적이 낮아질수록 탈진, 냉담 그리고 학업 무능감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지역(시도/읍면)에 따라서는 학생의 학업소진 즉 탈진, 냉담 그리고 학업 무능감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생의 5요인 성격특성이 학업소진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년과 성적을 통제하였을 때 성실성, 개방성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이 학업 소진의 하위요인인 탈진, 냉담, 그리고 학업무능감

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5요인 성격 특성 중 외향성, 성실성,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이 학업 소진을 설명하는 중요한 성격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의 학업소진 중 탈진은 정서적 안정성이 그리고 냉담과 학업 무능감은 성실성이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탈진의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할수록 학업소진이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단연구에서 정서적안정성이 낮은 학생들이 탈진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와(Deary, Watson, R., & Hogston, 2003),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놀이치료자와 상담자에서도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집단이 탈진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와(박현숙, 2008; 이영란, 2006; Zellars, Perrewe, & Hochwarter, 2000)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Maslach et al., 2001). 한편 냉담의 경우 성격의 5요인 중 성실성만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획적이지 못하고 성실하지 않을수록 학업소진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업 무능감의 경우, 성실하지 않을수록 학업소진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향성이 낮은 것 또한 학업소진을 설명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실성이 학업소진의 냉담과 학업 무능감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계획적이고 성실할수록 자신의 문제를 잘 조정하고 통제하여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의 수준이 높다는 기존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안현의, 김동일, 안창규, 2006; McCrae, & Costa, 1986). 성격의 5요인 중 하나인 성실성은 유능감, 정연성, 충실성, 성취에 대한 갈망, 자기 규제성, 신중성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실한 사람일수록 과제에 대한 조직력 및 성취욕구가 높아 효과적으로 자기조절학습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한윤영, 2003), 가정 생활에서의 적응력 또한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전혜경, 2007). 이렇듯 개인의 성실한 성격 특성이 높은 적응력 및 조절력과 관련되어 있어 학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소진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교사 및 놀이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소진 연구에서도 성실성과 소진이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박현숙, 2008; 신소정, 2008)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른 의의를 살펴보면, 본 연구는 학업소진에 중요한 학생들의 심리내적 변인인 5요인 성격특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아직 국내에서 연구가 미비한 학업소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에 상담자, 교사, 놀이치료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었으나(박현숙, 2008; 신소정, 2008; 이영란, 2006; Piedmont, 1993; Zellars, Perrewew, & Hochwarter, 2000),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학업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내는 연구가 매우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이영복, 이상민, 이자영, 2009; Jacobs, & Dodd, 2003), 본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업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소진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 결과는 학업소진은 학업소진이 심해지기 이전에 초기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청소년과는 달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한태영, 2005), 초기개입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학업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유능감이 높지만 학업소진이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Lee et al., in press),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적의 저하는 학업소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학업소진을 낮추기 위해 집중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 특성 중 성실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이 학업소진을 설명하는 중요 변인인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상담자는 신경증과 내향성이 상담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박현숙, 2008), 교사는 신경증, 성실성, 외향성이 주요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신소정, 2008)과는 달리 학생의 경우 성실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이 주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성실성, 개방성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을 키워준다면 학업소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결과는 학업소진 개발 프로그램이나 상담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미래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5요인 성격특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강원도 지역의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지역이나 연령이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대상(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심리내적 요인 중 5요인 성격특성만을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5요인 성격특성 외에 자아존중감, 낙천성, 완벽주의 등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심리내적 요인 외에 부모, 교사, 학교 환경 등 개인 외적 변인을 함께 고려한다면 학생 개인의 변인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과 소진의 하위요인에서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직무환경의 특성 차이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가설로 향후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과 소진간의 관계를 대상에 따라 메타분석함으로써 그 결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9. 10. 21.). 십대 청소년 수면제 처방 건수 급증. KBS 뉴스,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http://news.kbs.co.kr>.
- 권도원 (2001). 사춘기의 블랙홀 청소년 우울증. 서울: 주간동아.
- 김봉진 (2002). 중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과 건강행위 실천정도.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주 (1990). 입시벌. 서울: 하나의학사.
- 김기환, 전명희 (2000).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 127-152.
- 박명선 (2002). 완벽주의 성향과 시험불안, 학업성취도와 의 관계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일경 (2009). 성격 5요인과 학업소진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숙 (2008). 놀이치료자의 5요인 성격특성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선희, 하대현, 최형주 (2004). 내·외재 동기유형과 Big-five 성격요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0(1), 125-150.
- 신소정 (2008). 교사의 소진과 5요인 성격 특성과의 관계. 경성대학교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의, 김동일, 안창규 (2006). NEO 아동 및 청소년 성격검사의 해석과 활용. 서울: 한국가이던스.
- 오미향 (1993).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 훈련의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미향, 천성문 (199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요인 및 증상 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훈련의 효과. *인간 이해*, 15, 63-96.
- 원호택, 이민규 (1987). 고등학교 재학생의 스트레스. *한국임상심리학회지*, 6(1), 33-41.
- 유수현 (1996).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사회학적 접근. *연세사회지연구*, 3, 121-139.
- 윤은주 (2007). 상담자의 소진(burnout)에 대한 체험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진 (1993). 청소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방향. *청소년학 연구*, 1(1), 17-26.
- 이경희 (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관용, 김기중, 김순화 (1987). 효과적 스트레스 대응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9, 65-76.
- 이명희 (1989).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장애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란 (2006). 상담자의 소진(burnout)과 5요인 성격특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복 (2009). 청소년의 학업 소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복, 이상민, 이자영 (2009). 한국형 학업소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학연구*, 15(3), 59-78.
- 이유미 (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지적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자영, 남숙경, 박희락, 김동현, 이미경, 이상민 (2008). 상담경력과 상담자소진과의 관계: 한국과 미국상담자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23-42.
- 이지현 (200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자 (2007). 대입 수험생의 입시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영 (1995). 학력주의와 삶. *한국청소년 연구*, 20, 30-45.
- 정은주 (2000).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적 및 정

- 신건강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학래 (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4, 186-210.
- 최윤자 (2003). 중학생의 학습동기와 내외통제성 및 완벽주의 성향간의 관계.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9). 청소년통계. 서울: 저자.
- 한윤영 (2003). 5요인 성격특성과 자기조절학습전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태영 (2005). 청소년의 학교 장면 스트레스: 성격 및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2), 177-197.
- 홍영수 (2004). 청소년의 자상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의 완충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0, 7-33.
- 홍중호 (2002). 완벽주의 성향이 시험불안자의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정규 (1990). 한국학생의 스트레스 측정과 형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대논총 41, 25-66.
- Bakker, A. B., Van Der Zee, K. I., Lewig, K. A., & Dollard, M. F.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burnout: A study among volunteer counselor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6*(1), 31-50.
- Buss, A. H. (1989). Personality as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44*, 1378-1388.
- Chemiss, C. (1980). *Professional burnout in the human services organization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Deary, I. J., Watson, R., & Hogston, R. (2003). A longitudinal cohort study of burnout and attri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3*(1), 71-81.
- Eastburg, M. C., Williamson, J. W., Gorsuch, R., & Ridley, C. (1994). Social
- Edgar, B. (2008). *Well-being and performance in academic settings: The predicting role of self-efficacy*. Universitat Jaume I, Castellón (Spain),
- support, personality and burnout in nurs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 1233-1250.
- Farber, B. A., & Heifetz, L. J. (1982). The process and dimensions of burnout in psychotherapis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 Practice, 13*, 293-301.
- Freudenberger, H. J. (1974). Staff burn-out. *Journal of Social Issues, 31*, 159-165.
- Freudenberger, H. J. (1980). *Burnout: The high cost of achievement*. Garden City, New York: Anchor.
- Gan, Y., Shang, J., & Zhang, Y. (2007). Coping flexibility and locus of control as predictors of burnout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5*(8), 1087-1098.
- Goldberg, L. R. (1992). The development of markers for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Psychological Assessment, 4*, 26-42.
- Hendriks, A. A. J., Hofstee, W. K. B., & De Raad, B. (1999). The Five-Factor Personality Inventory(FFPI).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 307-325.
- Hu, Q., & Scaufeli, W. B. (2009). The factorial validity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in China. *Psychological Reports, 105*, 394-408.
- Huebner, E. S., & Mills, L. B. (1994). Burnout in school psychology: The contribution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role expectations. *Special Services in the school, 8*, 53-68.
- Jacobs, S. R., & Dodd, D. K. (2003). Student burnout as a function of personality, social support, and workload.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4*(3), 291-303.
- Kottler, J. A. (1993). *On being a therapist* (2nd ed.). San Francisco, Co: Jossey-Bass.
- Lee, J., Puig, A., Kim, Y. B., Shin, H. J., & Lee, S. M. (in press). *Academic burnout profiles in Korean adolescent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Lee, M. (1994). *Cultural differences in the daily manifestation of adolescent depression: A comparative study of American and Korean high school senior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Lee, M., & Larson, R. (2000). The Korea examination hell: Long hours of studying, di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249-271.
- MaCare, R. R., & Costa, P. T. Jr. (1986). Personality, coping and coping effectiveness in an adult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54, 385-406.
- Maslach, C., & Pines, A. (1977). The burnout syndrome in the day care setting. *Child Care Quarterly*, 6(2), 100-101.
- Maslach, C., & Jackson, S. E. (1981).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Maslach, C. (1982). *Burnout: The cost of caring*. New York: Prentice Hall.
- Maslach, C., & Schaufeli, W. B. (1993). Historical and conceptual development of burnout. In W. B. Schaufeli (Ed.), *Professional burnout: Recent developments in theory and research* (pp.1-18). Washington, D.C.: Taylor and Francis.
- Maslach, C., Schaufeli, W. B., & Leiter, M. P. (2001).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397-422.
- McCarthy, M. P., Pretty, G. M., & Catano, V. (1990).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student burnou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1, 211-216.
- McConnell, E. A. (Ed.). (1982). *Burnout in nursing profession*. St. Louis, MO: Mosby.
- Meier, S. T., & Schmeck, R. R. (1985). The burnout college student: A descriptive profile.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6, 63-69.
- Mills, L. B., & Huebner, E. S. (1999). A Prospective study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ccupational stressors, and burnout among school psychology practitione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8(1), 103-120.
- Piedmont, R. L. (1993). A longitudinal analysis of burnout in the health care setting: The role of personal dispos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1, 457-473.
- Saucier, G. (1994). Separating description and evaluation in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attribu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41-154.
- Schaufeli, W. B., Martez, I. M., Marques Pinto, A., Salanova, M., & Bakker, A. B.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464-481.
- Skovholt T. M. (2001). *The resilient practitioner*. Boston, MA: Allyn & Bacon.
- Zellars, K. L., & Perrewe, P. L., & Hochwarter, W. A. (2000). Burnout in health care: The role of the five factors of personal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8), 1570-1598.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Academic Burnout

Il Goung Park Sang Min Lee Bo Young Choi
Yuanying Jin Jayoung Lee
Education Department of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cademic burnout and personality factors based on Big Five, and to explain which personality factors influenced on academic burnout.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447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ults of multi-variat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as follow: extraversion, conscientiousness, and emotional stability sub-scales of Big Five inventory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exhaustion, cynicism, and academic inefficacy sub-scales in academic burnout inventory. While exhaus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emotional stability, cynicism and academic inefficacy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conscientiousnes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words : student burnout, Big Five, multi-variat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12월 9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0년 2월 9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2월 10일